

## 중앙대,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

등록 2022.06.20 16:08:05

**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 
국내학술대회**

**인공지능 사회**

일시 2022년 6월 24일(금) 13:00-18:00  
장소 비대면 (Zoom) 개최

사회 박소영(중앙대), 김바로(한국학중앙연구원), 박평중(중앙대)  
개회사 이찬규(인문콘텐츠연구소 HK+사업단장)

발표 | 토론

놀이 기반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교육 연구 - 김재웅(중앙대) | 이기성(중앙대)  
메타버스시대 발생가능한 사회적 이슈 및 이용자 행동강령 - 이현정(중앙대) | 강지영(단국대)  
연결하고 공명하는 기계들-신체들 - 김민선(가천대) | 유인혁(서울시립대)  
포스트휴먼 시대의 비주체와 정동 - 공현진(남서울대) | 황선희(중앙대)  
인공지능 시대의 신인류 디지털 휴먼 - 박진호(고려대) | 김태균(코텍스 대표이사)

종합토론

주최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 
HK+인공지능인문학사업단

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

[서울=뉴시스]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 포스터. 사진 중앙대 \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박선민 인턴 기자 = 중앙대(총장 박상규)는 오는 24일 '인공지능 사회'를 주제로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.

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23회 인공지능인문학 국내학술대회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인문학 연구기관 중앙대 HK+인문콘텐츠연구소가 주최하고,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.

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사회 전반에 가져온 변화와 앞으로 발생할 변화들을 다룰 예정이다.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.

학술대회는 이찬규 HK+인문콘텐츠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. 1부는 놀이 기반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교육연구, 메타버스

시대 발생 가능한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행동강령을 다룬다.

2부에서는 연결하고 공명하는 기계들-신체들, 포스트 휴먼 시대 시의 비주체와 정동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. 인공지능 시대의 신인류 디지털 휴먼을 주제로 진행되는 3부 이후에는 종합 토론을 통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.

이찬규 HK+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"인공지능 기술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.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·문화·역사·교육 등 인간사회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를 살피고, 인공지능의 미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mpark14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